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성공적인 삶을 위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야 한다.
②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모든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③ 더 많은 욕구 충족을 위해 재산을 많이 모아야 한다.
④ 죽음은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므로 신에게 의지해야 한다.
⑤ 참된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충족은 멀리해야 한다.

2.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나무가 곧아 먹줄에 맞는다 해도 구부려야 바퀴가 되고, 쇠는 숫돌에 갈아야 날카로워진다. 그러니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켜야 인간은 비로소 선해진다. 사람들이 본성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틀림없이 혼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보 기>

ㄱ. 인간은 누구나 노력[僞]을 통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ㄴ. 본성의 선한 단서를 확충하여 도덕적 덕을 실현해야 한다.
ㄷ. 인의(仁義)는 배움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ㄹ. 선왕의 가르침을 익히기보다는 스스로 예법을 제정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인간 본성이 지금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라. 자신의 고유한 선을 찾는 자는 누구나 본성이 요구하는 바를 알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과 우주 전체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 을: 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유덕한 사람은 지혜롭고 올바르지만 부덕한 사람은 무지하고 올바르지 못하다. 지혜와 덕과 행복은 일치한다.

① 갑: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② 갑: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정념의 원인이다.
③ 을: 모든 사회에 보편타당한 객관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을: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
⑤ 갑, 을: 진정한 행복을 위해 이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4.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 싸움이 끝나도 긍지를 갖거나 잘난 척하려 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라. 싸움이 끝나면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하고, 힘을 자랑하지 말라.
> ○ 배와 수레가 있더라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더라도 쓸 일이 없다. 이웃 나라가 서로 보이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서로 오가지 않는다.

① 도둑은 법령이 많아지고 엄격해질수록 줄어든다.
② 백성은 생명을 중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③ 통치자는 무력으로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④ 현자(賢者)를 높이지 않아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성인(聖人)은 사람들의 마음은 비워 주고 욕망은 약하게 해 준다.

5.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선한 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했다. 선하고 아름다운 신이 만든 만물은 아름답고 선하다. 신은 선으로서 선한 것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신은 세상을 신의 국가와 인간의 국가로 나누었고, 인간 삶의 모든 역사는 신의 국가의 승리로 귀결된다.

<보 기>

ㄱ.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신과 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ㄴ. 선과 악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는 신의 피조물이다.
ㄷ.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을 넘어선 신앙적 체험의 대상이다.
ㄹ.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지만으로 원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정치는 이름을 바로 잡는 것[正名]에서 시작된다. 이름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세워지지 않고, 예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 을: 선비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인가? 바로 인(仁)이다. 선비가 걸어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의(義)이다. 인에 머물며 의를 따르면 대인(大人)의 일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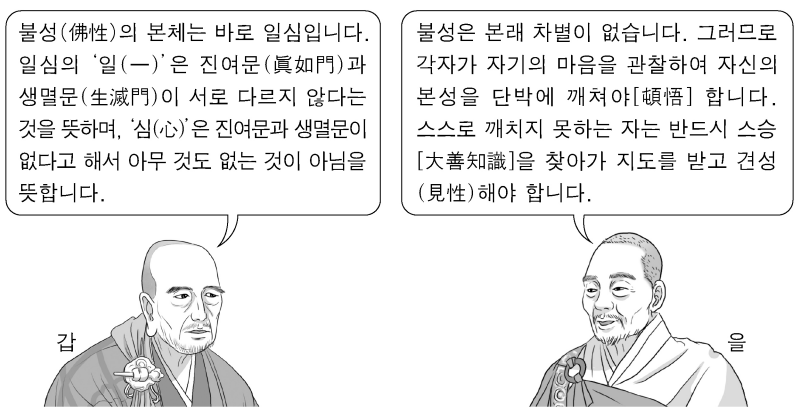
<보 기>

ㄱ. 갑: 군자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형벌의 공정성을 우선시한다.
ㄴ. 갑: 어진 사람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 없이 사랑한다.
ㄷ. 을: 왕도 정치는 백성의 생업 문제 해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ㄹ. 갑, 을: 예(禮)는 인간의 도덕적 삶에 필수적인 사회 규범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8. 그림은 한국 사상가 갑, 중국 사상가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 : 일체의 존재와 현상은 마음[心]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② 갑 : 참된 지혜에 이르기 위해 유와 무의 실상(實相)을 깨달아야 한다.
③ 을 : 깨달음에 이르려면 문자(文字)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④ 을 : 선(禪)의 수행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⑤ 갑, 을 : 불성은 단박에 깨달은 이후에야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

7.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중세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덕은 마땅한 목적을 위해,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모자람과 지나침 사이에 있는 것이다.
> 을 : 덕 중에서 용기나 지혜는 국가의 한 부분에만 있어도 되지만, 절제는 나라 전체에 걸쳐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덕이 모두 갖추어진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이다.
> 병 : 덕에는 지상의 행복을 위한 것과 천상의 행복을 위한 것이 있고, 법에는 영원법, 신법, 자연법 등이 있다.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것이다.

① 갑 : 실천적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다.
② 을 : 용기와 절제는 영혼의 탁월함이 아니라 신체의 탁월함이다.
③ 병 : 진정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 지상에서 달성된다.
④ 갑, 병 :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⑤ 갑, 을, 병 : 참된 실재는 현상적 세계와 초월적 세계 모두에 있다.

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갑 : 행복은 하나의 목적으로서 유일하게 바람직한 것이며, 최대 행복의 원리는 도덕의 기초가 된다. 당사자에게 두 종류의 쾌락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질(質) 높은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결코 최대 행복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을 : 행복은 언제나 쾌적함과 관계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최고의 만족 상태이고, 도덕 법칙은 자유의 법칙으로서 자연과 자연적 경향성에 전적으로 독립해 있다. 도덕 법칙 안에서 도덕성과 인간의 행복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은 없다.

① 갑 : 행위의 동기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다.
② 갑 : 삶의 궁극적 목적은 가능한 한 고통이 없는 최대 행복이다.
③ 을 : 실천 이성은 의무를 명령할 때 행복을 위한 모든 요구를 수용한다.
④ 을 :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도덕의 원리는 자율의 원리이다.
⑤ 갑, 을 : 개별 행위의 도덕성을 판별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

10.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 치지(致知)가 격물(格物)에 있다는 것은 나의 지식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理]를 궁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물의 이치를 극진히 하면 곧 나의 앎이 활연히 관통하게 되어 가림이나 막힘이 없게 된다.
> 을 :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을 양지(良知)라고 한다. 어떤 생각이 일어남이 곧 행동이다. 생각이 일어난 곳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생각을 없애야 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이다.

① 갑 : 기질이 없이는 하늘이 준 본성이라도 자리 잡을 곳이 없다.
② 갑 : 인간이 타고난 기질의 맑고 탁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③ 을 : 마음 밖에 따로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 따로 일[物]이 없다.
④ 을 : 양지를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 곧 치지격물(致知格物)이다.
⑤ 갑, 을 : 어리석은 이는 양지를 온전히 실현해도 성인(聖人)이 될 수 없다.

11.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 덕은 이성으로는 발견될 수 없고, 덕이 유발하는 어떤 인상이나 정서를 통해서 덕으로 확정된다. 오직 어떤 특성이 우리에게 승인 혹은 부인의 정서를 불러일으킴에 따라 우리는 그 특성에 덕이 있다 혹은 악덕이 있다고 느낀다.
> 을 : 덕 또는 의무와 관련된 개인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공리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 원리는 쾌락의 양만 고려하여 이익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위를 승인 혹은 부인하는 원리이다.

<보 기>

ㄱ. 갑 : 덕과 악덕은 이성적 논증에 의해서 판별될 수 없다.
ㄴ. 을 : 개개인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선 사회의 이익이 있다.
ㄷ. 을 :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경건함의 가치도 계산 가능하다.
ㄹ. 갑, 을 : 승인과 부인의 감정 자체가 도덕의 원리가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2~13]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 성(性)에 대해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듯이 정(情)에 대해서도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즉, 칠정을 사단과 대립시켜 구분되는 것으로 본다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이다.
> 을 :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마음이 움직이면 정이 되는데, 발하는 것은 기고 발하는 까닭은 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까닭이 없으니 어찌 이발(理發)이 있겠는가? 기발(氣發)이 있을 따름이다.

12.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이와 기는 모두 형태가 없다는 점에서 같은 것인가?
ㄴ. 이는 작용이 없으며 만물에 두루 갖추어져 있는가?
ㄷ. 칠정은 선 또는 악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가?
ㄹ. 사단은 이가 마음 밖에서 발하여 드러나는 것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린은 선한 것으로 정해져 있어 선한 것이 공(功)이 되지 않고, 승냥이는 악한 것으로 정해져 있어 악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선을 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하고자 하면 악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권능[自主之權]을 지닌다. 따라서 인간이 선을 행하면 자신의 공이 되고, 악을 행하면 자신의 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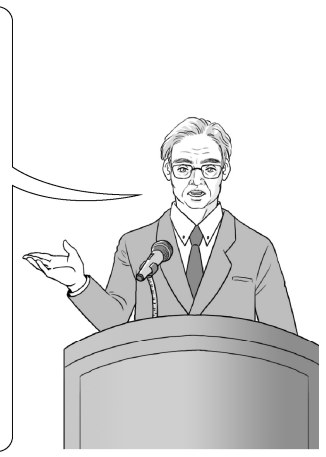
① 인간이 본래 타고난 성(性)이 곧 이치[理]임을 간과한다.
② 사양지심은 예의 실마리가 아닌 예의 시작[始]임을 간과한다.
③ 거경(居敬)의 실천을 통해 이기적 욕망을 없애야 함을 간과한다.
④ 사단(四端)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는 감정임을 간과한다.
⑤ 인간이 하늘[天]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았음을 간과한다.

14.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생산하는 자연, 즉 신은 만물의 원인이다. 신은 자신에게 아무런 목적도 설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성한 본성에 의거해서만 존재하고 활동한다. 그러나 생산된 자연은 신의 속성의 모든 양태이고,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파악될 수도 없다.

① 인간의 자유는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하다.
② 신의 양태인 자연 만물 안에는 다수의 실체가 존재한다.
③ 인간은 신의 본성을 파악할 수 없고 인식할 수도 없다.
④ 신뿐만 아니라 인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원인이 되어 존재한다.
⑤ 신의 자유 의지로 산출된 자연은 신이 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1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덕은 일반적 규칙들의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② 사회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보편적 덕을 실천해야 한다.
③ 삶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닌 타고난 삶의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④ 좋은 삶의 본질적 요소인 역사적 맥락과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
⑤ 행위자의 덕성보다 도덕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16.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u>않은</u>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갑 : 순일(純一)한 것과 쉼이 없는 것이 정성[誠]이며, 내 마음을 공경함[敬]이 곧 경천(敬天)의 도를 바르게 아는 길이다. 마음을 믿는 것[信]은 곧 한울을 믿는 것이며, 한울을 믿는 것은 곧 마음을 믿는 것이다.
> 을 : 사학(邪學)의 서책과 천주(天主)의 초상이 들어오면 사람마다 사학을 하게 되니,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게 된다. 인륜을 멸하고 오상(五常)을 해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와 금수(禽獸)의 지경이 되는 것이다.

⊙ 학생 답안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사람은 존귀하여 신분의 구별이 없는 평등한 존재라고 보았으며, ㉡ 한울님의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을은 ㉢ 사람이 예절과 의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금수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며, ㉣ 서양의 문물은 백성을 교화하는 데 해(害)가 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갑, 을은 모두 ㉤ 유교적 가치만을 올바른 것으로 보고 이를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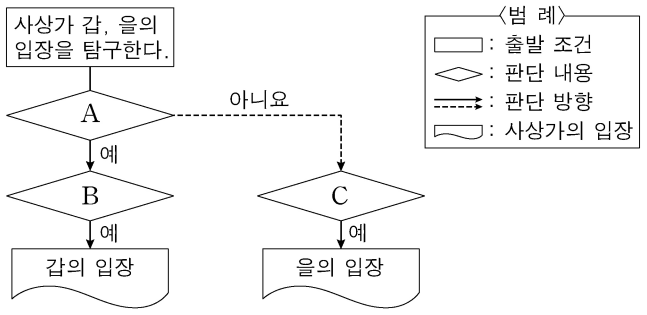
17.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정의로운 분배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첫째,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

을 : 정의로운 분배는 영역 간 가치의 일반적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영역의 사회적 가치 X는 어떤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X의 의미와 관계없이 Y를 소유한 사람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나)



<보 기>

ㄱ. A: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선택되어야 하는가?
ㄴ. A: 정의의 실현을 위해 모든 불평등을 제거해야만 하는가?
ㄷ. B: 경제적 이득으로 보상된다면 기본적 자유의 침해는 정당한가?
ㄹ. C: 가치의 분배 기준은 해당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다른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은 저절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정부는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정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을 : 정부의 경제 계획은 우리 삶의 일부를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통제는 우리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통제한다. 경제 계획은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억압하고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끈다.

<보 기>

ㄱ. 갑 :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ㄴ. 갑 : 정부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ㄷ. 을 :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ㄹ. 갑, 을 :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시장 원리를 인정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과 더불어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두어야 한다.

을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한 자유의 주체로서 각자 자연권을 향유하며 자기 보존을 위해 경쟁한다. 그러한 경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에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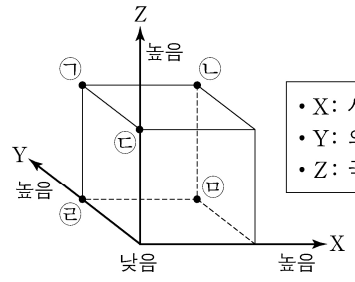
ㄱ. 갑 : 주권은 구성원의 동의하에 군주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ㄴ. 갑 :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ㄷ. 을 :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한 폭력은 부정의한 것이다.
ㄹ. 갑, 을 :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기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기계 장치의 확대와 분업으로 자립성을 상실했다. 노동자는 기계의 단순한 부품이 되었고, 그들의 임금은 노동이 혐오스러워질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에 우리는 계급투쟁을 통해 낡은 생산관계를 폭력적으로 청산할 것을 촉구한다.

(나) 자본주의의 거대한 생산력에 비해 노동자는 언제나 빈곤했다. 이에 우리는 노동 착취를 반대하고 빈부 격차를 축소하여 진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한다. 권위주의 체제를 동반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사회주의의 최고 형태는 민주주의이다.



• X: 사유 재산의 폐지를 강조하는 정도
• Y: 의회 활동을 통한 점진적 개혁을 강조하는 정도
• Z: 국가 및 계급 소멸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